

어음은 [몇 년 몇 월 몇 일에 얼마를 어느 은행에서 갚겠다고 적어 놓은 특별한 쪽지]라고 보면 됩니다. 하지만 어음이 차용증서와는 다릅니다. 차용증서가 개인간의 거래인데 비하여 어음은 중간에 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이죠.

어음은 수표와도 다릅니다. 수표는 통장에 있는 금액만큼만 발행할 수 있지만 어음은 통장에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고, 수표는 발행되는 그 순간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찾아가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, 어음은 어음쪽에 적혀있는 날 은행에 찾아가서 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

<돈 빌려준 사람은 정해진 날짜에 은행이 가서 빌려준 돈을 반환받으면 된다.>



